

한국IT리더스포럼

KDI 현정택 원장 · 김선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강연



협회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은 지난 9월 및 10월 정기조찬회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찬회에서는 KDI 현정택 원장이 '최근 한국경제 동향과 향후의 성장동력 회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현 원장은 "한국 경제, 불황 극복은 산업 내 분업을 겨냥한 핵심역량 강화가 답이다"고 밝히면서 강연을 전개했다.

현 원장은 또한 IMF에서 발표한 수치를 들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4%대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주원인이라 설명하며,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본체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회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업계의 미래전략에 대해 "현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중국업체로 기술이 확산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고기술 부품은 자체 생산하고 개도국에서 범용 부품을 수입, 이를 핵심부품화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10월 조찬회에서는 김선화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선화 청와대 과기보좌관은 참여정부에서 유지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계승하고, 과학기술 중심 국가 구축과 이공계 육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의 일단을 밝히면서 강연을 전개했다.

김 보좌관은 "지방 과학관과 산업체협관을 지어더라도 국민의 과학기술 및 IT산업의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술가치 평가가 자금 유치에 결정적 요인이 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패키지형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 사람과 돈(연구비)을 묶어 중소기업에서 고급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보좌관은 과학기술 및 IT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유비쿼터스시대는 이제 시작이며 사회(유비쿼터스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면서 "산·학·연 협력이나 지역 클러스터 산업을 육성해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의 : 한국IT리더스포럼 사무국 (02-580-0533)

김종갑 산자부 차관 초청 정보통신포럼 개최



협회는 지난 9월 29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국화룸에서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을 초청해 '제 26회 정보통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전자산업의 주요 트렌드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한·미 FTA문제부터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로 정책제안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디지털전자산업의 극복해야 할 문제점과 구체적인 해결과제를 제안하면서 향후 디지털전자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보통신포럼의 27회 행사는 11월 29일 김용민 조달청 청장을 초청해 '공공부문 IT조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국내 ASP 솔루션 해외진출 민간 협의체 출범



왼쪽부터 크리에이션 김현중 이사, 투아이테크놀로지 김도현 사장, 오픈정보기술 백승두 이사, 노아이테크놀로지 박일수 이사

협회는 지난 10월 31일 협회 회의실에서 국내 ASP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간협의체인 '기업정보화 컨소시엄'을 정식 출범했다.

본 협회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원장 : 김창곤)은 2004년도부터 국내 우수 ASP 솔루션의 해외진출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지속적인 진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현지 인프라 환경으로 인해 국내 현지기업(10개사)을 대상으로 정통 ASP 서비스가 아닌 SI 방식의 기업정보화 솔루션을 제공하여 이용 중에 있으며, 전통 ASP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조성을 위해 투아이테크놀로지(위원장 : 김도현)를 비롯한 노아이테크놀로지, 신성정보기술, 오픈정보기술, 크리에이션, 韓華軟件(上海)有限公司(한서연건기술(상해)유한공사) 등 기업정보화 솔루션의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업정보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한, 상해시 기업정보화촉진센터(센터장 : 고위화) 및 상해전신(대표이사 : 왕위)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는 물론, 국내 우수한 솔루션의 중국진출을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의 주요사업으로는 국가간 기업정보화 서비스 및 관련산업의 해외진출 계획 수립, 국가간 기업정보화 관련 정보교류, 해외시장 진출 방안 수립 및 대정부 정책 제언 등이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화를 위한 프로젝트 공동관리 지원, 해외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계획 공동수립, 해외의 현지 정부 및 기업 접촉 등 대외협력 공동대응 활동을 위한 PMO, 마케팅, 대외협력 등의 3개 분과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중국의 협력기관 및 기업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문의 : IT산업지원팀 (02-580-0524)

산림청 · 에듀넷 등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선정



협회는 최근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에 산림청, 문화재청, 엠게임, 이지윌페어,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단전애플아이터, 사랑방신문, PC클리어, DHCKorea, 하나팩스, 에듀넷,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 총 12개 사이트가 인증심사를 거쳐 최종심의를 통과하고 9월 29일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시스템보안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는 산림청, 종로구시설관리공단, PC클리어, DHCKorea 등 4개 사이트가 인증심사에 합격,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신규 인증심사에는 총 20개 사이트가 신청하여 16개 사이트가 인증을 받았으며, 약 3개월 동안 온라인 모니터링 및 회원가입 테스트, 서류심사 및 사실심사, CEO 면담 등을 거쳐 정보보호마크 인증위원회(위원장 이교용)의 최종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인증심사에서는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 ▲영리목적 광고성 이메일 발송 시 수신거부 방법안내 마련 ▲DB에 대한 개인별/등급별 접근제한 방침 마련 ▲만 14세 미만자의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 마련 등 인증신청 업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대폭 개선됐다.

또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인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고 인증위는 밝혔다.

○ 문의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사무국 (02-580-0533)

LBS산업협의회 추계 워크숍 개최

협회 내 LBS산업협의회(회장 조정남)는 지난 10월 24일 타워호텔에서 '2006년 LBS산업협의회 추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LBS 법제도 및 산업 활성화 정책과 차세대 LBS 기술 및 서비스 전망을 소개하는 한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자료를 정리했다

▶ LBS 법제도 및 산업 활성화 정책

먼저 정보통신부 이상철 사무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현황과 정부에서 11월에 추진할 예정인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실태점검 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이어서 KADO 최창호 박사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사회 소외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LBS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의 필요성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해 발표했고, 도로명주소사업단의 김성수 팀장은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대한 법률' 및 '도로명 주소통합센터사업'에 대한 설명과 민간업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는 계획도 함께 언급했다.

▶ 위치측위 고도화 현황 등 협의회 주요활동

LBS산업협의회 김춘석 본부장은 2006년 한 해 동안 협의회에서 추진해 온 주요사업(법제도 개선사업, 위치정보활용현황 보고서 발간, 표준화 활동)에 대해 정리·발표했으며, 주요핵심사업인 '긴급구조 향상을 위한 측위고도화 방안'은 측위고도화 추진반 위원장인 군산대학교 남광우 교수가 설명했다.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측위고도화추진반은 올 3월부터 국내 위치정보의 정확도 향상의 필요성을 연구하고 해외 법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 수준에 적합한 측위 고도화 의무화 대상, 품질 기준, 법제도적 실행방안 등 측위고도화 정책 건의서 초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 최종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에 대정부 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 차세대 LBS기술 및 서비스 동향

ETRI 안경환 박사는 차세대 LBS 기반기술인 Seamless LBS에 대해 발표했고, SKT 최진열 과장은 기존 LBS서비스 한계 및 향후 LBS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서 한국위치정보 박용규 이사는 본격적인 사업개시에 앞서 지상파 LBS 사업개요 및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했고 삼성전자 현문필 선임연구원은 LBS표준화포럼 무선측위WG에서 올 한해동안 추진한 휴대인터넷 기반 측위기술 표준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 문의 : 정보화기획팀 (02-580-0532)